

제주도의 세 시조

글 | 이한

그림 | 박수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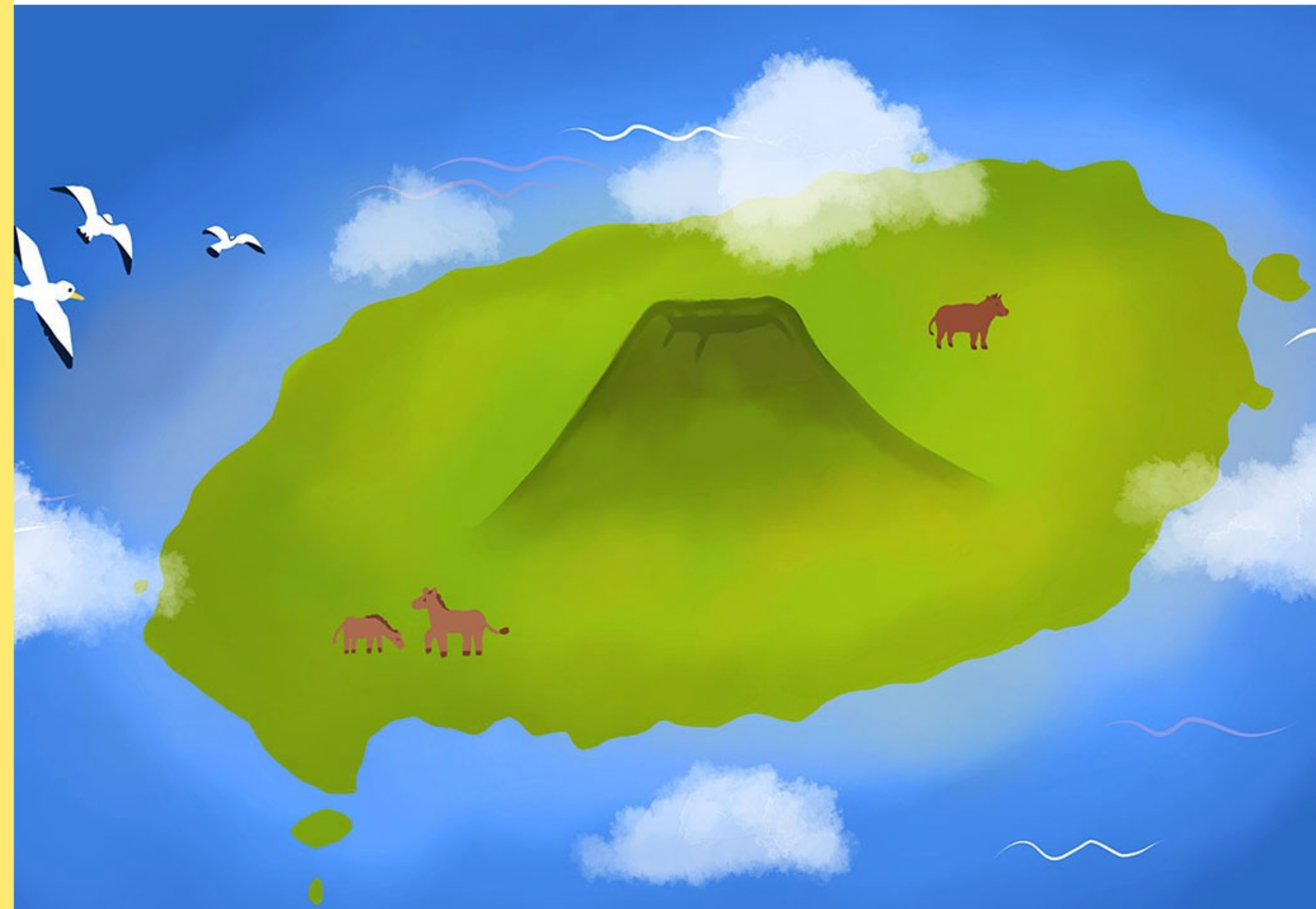
글 | 이한

그림 | 박수진

편집 | 김은파, 이수인

편집 디자인 | 이해명

목소리 | 윤성혜





한반도의 남쪽에는 아주 커다란 섬이 있습니다.
바로 제주도입니다.



먼 옛날 제주도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.
그런데 세 개의 구멍에서 세 명의 신이 솟아 나왔습니다.



세 신의 이름은 양을나, 고을나, 부을나였습니다.

셋이서 함께 짐승을 사냥하고 가죽옷을 입고 살았습니다.



어느 날, 바닷가에 커다란 상자가 떠내려왔습니다.

“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?”

세 신은 궁금해져서 상자를 열었습니다.



상자 안에는 파란 옷을 입은 세 여인이랑 곡식, 망아지와 송아지가 들어 있었습니다. 벽랑국의 공주들이 세 신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!



세 신은 공주들과 결혼해서 가족을 이뤘습니다.
그리고 곡식을 심어 농사를 짓고 말과 소를 부렸습니다.



제주도는 이전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.
세 신은 양씨, 고씨, 부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.

“제주도의 세 시조” is licensed under CC BY 4.0 by Enuma, Inc. &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.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, visit <http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4.0/>.

© 2019 by Enuma, Inc. &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